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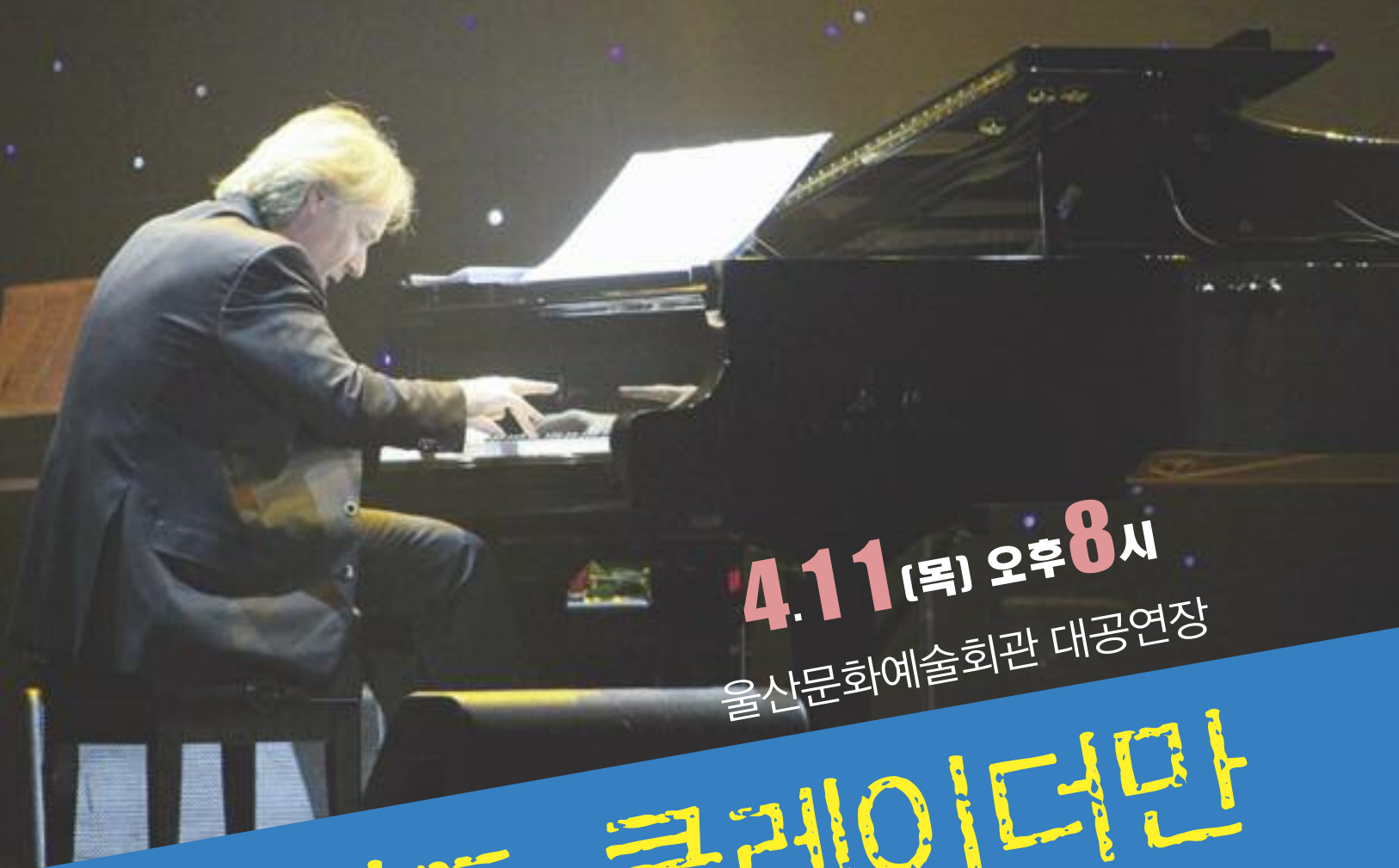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4

2013 <http://www.ucaoc.or.kr>



**4.11** (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리처드 클레이더만

내한공연



- 입장권 : V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 예매 : 052-275-9623 [www.ucac.or.kr](http://www.ucac.or.kr)
- 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 C / O / N / T / E / N / T / S



04 기획공연 | 리차드 클레이더만 내한공연  
모닝콘서트 불멸의 오페라 '베르디와 푸치니'



08 시립예술단 공연 | 시립합창단 '영화속 명곡들과 함께'  
시립교향악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시립무용단 기획공연 '타타타'  
시립교향악단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 음악회'



16 기획전시 |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20 예술을 말하다 | 세계의 문화도시  
보헤미아의 둠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이탈리아 오페라  
예술축제를 찾아서

30 문화의 향이 있는 삶 | 미래 울산

32 공연·전시가이드 | 4월의 공연·전시

---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4월호 통권 163호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달동 413-13)  
T.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발행인 | 이형조 편집인 | 안종철

기획·편집 | 박용하, 고순영

편집 |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 예성인쇄기획 T.052-227-3884

---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Richard Clayderman  
Romantic

# 리처드 클레이더만

내한공연

2013. 4. 11(목)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주 : 리처드 클레이더만  
반주 : 현악 앙상블

267개 골든 디스크, 70개 플래티넘 앨범  
9,0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기록, 800여 타이틀곡 발표  
199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음반 판매고로 기네스북에 등재

‘피아노의 시인’, ‘로맨스의 왕자’, ‘우리시대의 베토벤’ 등 많은 애칭을 가진 리처드 클레이더만이 30여년의 감성적인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 팬들을 찾아온다. 내한 공연 때마다 매진을 기록하였고,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연주하며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 그가 다시 내한하여 현악 앙상블과 함께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 리처드 클레이더만 Richard Clayderman 모국어 불어보다 악보를 더 능숙하게 읽은 신동

1953년 12월 28일에 태어난 Philippe Pagès(리처드 클레이더만의 본명)은 일찍부터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다.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피

아노를 가르쳐 훗날 아들의 성공에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리처드 클레이더만이 여섯 살이 되던 해에는 모국어인 불어보다 악보를 더 능숙하게 읽었다고 말했다. 12살에는 음악원에 입학하였고 16살에는 일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 미래가 촉망되는 인재였다. 하지만 얼마 후에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몇 명의 친구들과 록 그룹을 결성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이었다. 조금의 돈이라도 생기면 악기를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기 힘든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17세 때 위궤양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클레이더만은 말한다.

그의 아버지가 위중해지면서 그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게 되자 클레이더만은 생계를 위해서 반주자와 세션 음악가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그 일이 즐거웠고 수입 또한 그 때로서는 꽤 좋은 편이었다. 비록 그 일이 내가 될 수 있었던 탄탄한 기반이었음에도 나는 떠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재능은 곧 눈에 띄어 Michel Sardou, Thierry LeLuron 그리고 Johnny Halliday 같은 프랑스 스타들의 반주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난 정말 스타가 되고 싶지 않다. 그룹에서 연주 할 때와 반주자가 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Olivier Toussaint을 만나 곡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받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1976년에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Olivier Toussaint라는 유명한 프랑스 레코드 제작자의 전화를 받고 나서이다. Paul de Senneville는 부드러운 발라드를 녹음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Paul은 새로 태어난 딸 “Adeline(아드린느)”를 위해 발라드를 작곡했고 당시 23세였던 Philippe Pagès는 다른 20명의 오디션 신청자와 함께 오디션을 본 후 그 일을 따내고 스스로가 놀랐다고 한다. “우리는 그를 본 순간 빠져들었다. 그의 개성 있고 잘생긴 외모와 매우 특별하고 부드러운 연주가 우리를 감명 깊게 만들었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Paul de Senneville는 말했다. Philippe Pagès의 이름은 Richard Clayderman으로 바꾸었고(외국인이 발음하기 쉽도록 그의 증조할머니의 성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의 싱글앨범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는 38개국에서 2천 2백만 장이 팔렸고 기네스북에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피아니스트’로 기록하였다.

Olivier Toussaint는 “내가 그와 계약 했을 때 나는 그에게 만 장만 팔아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디스크가 유행하던 시기

였기 때문에 발라드가 승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이 크게 히트를 칠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베토벤 이후 피아노를 가장 대중화 시킨 연주자**

이것은 뛰어난 성공사례가 되었고 리차드 클레이더만은 독특한 피아노 스타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1,200곡을 녹음했고 독일 기자는 “그는 틀림없이 베토벤 이후의 누구보다 피아노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를 표현했다.

**기록적인 음반 판매**

리차드 클레이더만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클래식과 팝의 결합을 통한 레퍼토리를 통해서 “뉴 로맨틱”스타일을 창조했다. 그는 대략 9천만장의 앨범 판매와 267개의 골드디스크, 70개의 플래티넘 디스크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로맨스의 왕자”는 단순히 기록적인 아티스트가 아니었다. 사실 그의 수줍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에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의 콘서트는 ‘Spectacular’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나는 무대에서 청중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하는 것이 좋다. 콘서트에서 나의 10명의 뮤지션 또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정의 모든 종류와 다른 템포, 리듬 그리고 스타일이 섞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더욱 깊어진 음악성**

리차드 클레이더만이 들려주는 낭만적이면서도 고전적인 품위가 넘치는 연주는 어느 곡이나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 속에 오래오래 간직된다. 30여년의 연주와 창작 활동으로 더욱 깊어진 음악성은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세계 팬들로부터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연주자로 매년 프랑스외의 나라에서 250일 동안 200번 이상의 많은 공연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의 연주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흔히 들을 수 없는 따뜻하고 매끄러운 연주기법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만들어 나가는 청중과의 강한 유대감 때문이라 여겨진다.





불멸의 오페라

# 베르디와 푸치니



음악평론가 이현석

2013. 4. 30(화) 오전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권 : 전석 7천원
- 해 설 : 이현석(음악 평론가)
- 출 연 : 소프라노 - 김순연, 테너 - 이정현  
          바리톤 - 조대현, 피아노 - 황인아
-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

오페라의 양대 산맥 베르디와 푸치니의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갈라 콘서트 고전과 시대 후반부터 낭만과 시대까지 세계 음악계의 주류는 오페라였다. 그 시절 작곡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오페라 작곡가들이 누렸다. 고로 누구든 작곡가로 성공해 부와 명예를 얻으려면 오페라 작곡은 필수였다. 그런 오페라의 본고장은 이탈리아였다. 예컨대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만개했고,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들에 의해 전세계로 뻗어나갔다.

그 중에서도 베르디와 푸치니는 오페라계를 양분하고 있는 최대의 작곡가들. 이들은 19세기에는 물론이고 20세기,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오페라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매년 공연되는 오페라 중 70%가 베르디와 푸치니의 작품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 게다가 올 해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여서 1년 내내 크고 작은 공연이 계속될 예정.

이렇듯 오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베르디와 푸치니의 삶과 음악을 살펴보고,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푸치니의 [라 보엠], [토스카], [잔니 스키키] 등 불멸의 오페라 속 주옥같은 아리아를 들어보는 갈라 콘서트.



### 테너 이정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연구원 역임
- 오페라 '잔니 스키키',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루치아',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 주역 출연
- 하이든 '넬슨미사',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슈베르트 'Messe No.3' 솔로리스트
-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교수와 협연
- 드라마 '각시탈', '인생은 아름다워', '장밋빛 인생', '애정의 조건', '행복한 여자', '노란 손수건' 등 다수의 드라마 OST 주제가 녹음
- 2010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정식 및 A매치 애국가 선창자
- 2012 KBS 연기대상 축하공연
- 솔로음반 1집 'Tenor Lee Jung Hyun', 2집 'TRUE' 앨범 발매(교보 핫트랙스 클래식 차트 2011년도 1위)
- 現, 포니캐년코리아(주) 소속 아티스트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순수음악분야 이사



### Bass-Baritone 조대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연구원 역임
- ITALIA ARENA ACADEMIA 성악 및 합창지휘 Diploma
- 오페라 '토스카', '루치아', '라 트라비아타',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
-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 헨델 '메시아', 드보야 '심자가상의 칠안', 구노 '장엄미사',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등 솔로리스트
- 現, 국립합창단원



### 피아니스트 황인아

- 선화예술 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경원대학교 강사 역임
- 한국 페스티벌 코러스 반주자 역임
- 르네상스 오페라단 피아니스트 역임
-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음악코치 역임



### 소프라노 김순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Peabody Conservatory of Johns Hopkins University
- 現,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 재학
-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출강

진행자와 성악가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토크 & 라이브 콘서트 베스트셀러[열려라 클래식]과 [이럴 땐 이런 음악]의 저자이자 KBS [명작스캔들]의 고정 게스트이고, [EBS 해외 특선 공연]의 진행자였으며, 현재 KBS 임백천의 라디오7080,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의 각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이현석이 들려주는 경쾌하고 재미있는 해설!

특히 이 날은 오페라의 유익한 이해를 돕기 위해 前 서울대 오페라 연구소 연구원이자 테너인 이정현과 함께 베르디와 푸치니를 집중 해부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음악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성악가들이 펼치는 명품 콘서트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들며 다망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대 출신 세 성악가 소프라노 김순연, 테너 이정현, 베이스 바리톤 조대현과 자타가 공인하는 오페라 반주의 일인자인 피아니스트 황인아가 들려주는 베르디, 푸치니 오페라 아리아의 정수!

국내외에서 공연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잔니 스키키]등에서 열연한 바 있는 막강 성악진의 열창과 르네상스 오페라단 피아니스트와 ·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음악코치를 역임한 피아니스트 황인아의 연주는 오페라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켜주며, 눈과 귀가 즐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영화 속 명곡들과 함께

## Classic in the Movie

2013. 4. 9(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 장 권 : 전석 5천원
- 예술감독 : 구 천
- 지 휘 : 한성용
- 연 출 : 박용현(극단 동녘 연출)

오페라와 클래식을 소재로 한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The music teacher 1989), '아마테우스'(Amadeus 1984), '노다메 칸타빌레'(Nodame kantabire 2011)에 삽입된 곡들을 선곡하여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연주되는 음악과 함께 영화의 감동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연주되는 곡과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오버랩(overlap)시킬 수 있도록 영상연출과 해설이 더해져 한층 즐거운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면 속의 아리아(The Music Teacher 1989)

1987년에 제작된 제라르 꼬르비오 감독의 벨기에 영화로서 유명한 성악가 조아킴(Joachim Dallayrac)이 어느날 갑자기 은퇴를 한다. 은퇴를 한 후 조아킴은 여자 제자 소피(Sophie)를 가르키는 일에 전념한다. 어느날 시장에 갔다가 조아킴은 장(Jean)이라는 도둑을 만난다.

장에게 가수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느낀 조아킴은 장을 집으로 데려다가 노래를 가르친다.

조아킴은 소피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변민을 한다. 그러나 조아킴은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 아마테우스(Amadeus 1984)

1823년 눈보라치는 밤, 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수용소에 수감되어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는 요세프 2세의 궁정 음악장인 살리에르(Antonio Salieri)로서 우연한 기회에 모짜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공연을 보고는 그의 천재성에 감탄한다. 그러한 모짜르트에게 천재성을 부여한 신을 저주하고 그를 증오하기 시작한다. 그럴 즈음 빈곤과 병마로 시달리던 모짜르트는 자신이 존경하던 아버지의 죽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자책감에 시달린다.

이를 본 살리에르는 이것을 이용해 모짜르트에게 아버지의 환상에 시달리도록 하면서 진혼곡의 작곡을 부탁하자 계속돼 가는 심리적 압박에 결국 모짜르트는 죽게 되고 살리에르 역시 나름대로의 대가를 받게 된다.

### 노다메 칸타빌레(Nodame Kantabire 2011)

천재 피아니스트 노다메와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약 중인 치아키는 파리, 빈, 프라하를 오가며 음악에 대한 꿈과 사랑을 키우고 있다. 낯선 도시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다메와 치아키의 사랑은 더욱 무르익어가는 데.....

치아키와 협연을 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인 노다메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함께 연주하기를 바라지만, 치아키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노다메의 연적 루이(야마다 유)와 먼저 공연을 하게 된다.

좌절에 빠진 노다메에게 세계 최고의 지휘자 슈트레제만(타케나카 나오토)이 협연을 제안하고, 노다메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데뷔무대를 갖는다. 대성공을 이룬 공연직후 전세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피아니스트 노다메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 가면 속의 아리아(The Music Teacher 1989)

- Questa o Quella(이것도 저것도) / 테너 배수완
- Verdi opera 'Rigoletto' 中(베르디 오페라 '리골렛토' 중)
- Cortigiani(악마의 자식들아) / 바리톤 최판수
- Verdi opera 'Rigoletto' 中(베르디 오페라 '리골렛토' 중)
- An die music(음악에 부침) - 합창
- 슈베르트가 1817년에 작곡한 가곡으로 음악예술에 대한 찬가

● 아마테우스(Amadeus 1984)

- Non piu andrai (더 이상 못 날으리) / 베이스 황성진
- Mozart opera 'Le nozze di figaro' 中(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 Der holle rache kocht in meinen herzen(내 맘 복수심으로 불타네) / 소프라노 김나정
- Mozart opera 'Die zauberflöte' 中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 Pa Pa... papageno(파파게노의 2중창) / 소프라노, 바리톤 전해정, 이병웅
- Mozart opera 'Die zauberflöte' 中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 Lacry mosa(슬픔의 밤) / 합창
- Mozart 'Requiem' 中(모차르트 '레퀴엠' 중)
- Dies irae(진노의 날) / 합창
- Mozart 'Requiem' 中(모차르트 '레퀴엠' 중)

● 노다메 칸타빌레(Nodame cantabile 2011)

- Voi che sapete che cosa e'amor (사랑의 괴로움을 아시나요) / 메조소프라노 강연희
- Mozart opera 'Le nozze di figaro' 中(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 O mio babbino caro(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김성아
- Puccini opera 'Giani schicchi' 中(푸치니 오페라 '자니 스키키' 중)
- Salut D'amour(사랑의 인사) / 합창
-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에드워드 엘가(E. Elgar)의 작품
- Ave verum corpus(성체 안에 계신 예수) / 합창
- 모차르트의 종교음악 중 '레퀴엠' 과 함께 손꼽히는 명곡
- Triumphal Marh(개신 행진곡) / 합창
- Verdi opera 'Aida' 中(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 2013 교향악축제 개막공연



지휘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울산시립교향악단의 2013년 교향악축제 개막 공연

이번 2013 교향악축제는 예술의 전당 개관 25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등 전국 최고 기량의 오케스트라 16개팀만을 엄선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어지며, 울산시립교향악단은 당당히 4월 1일 첫 번째 팀으로 개막공연에 참가하게 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의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자들이 꿈의 향연을 펼친다.

2013. 4. 1(월) 20:00

서울 예술의 전당 음악당

지휘 : 김홍재 (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 첼리스트 다니엘 리

■ 입장권 : R석 3만원, S석 2천원, A석 1만원

## 2013 교향악축제 참가

### ■ 4.1 울산시립교향악단 (지휘 김홍재, 첼리스트 다니엘 리)

- 베르디 \_ 운명의 힘 서곡
- G. Verdi \_ Overture to "La forza del destino"
- 드보르작 \_ 첼로 협주곡 b단조 Op.104
- A. Dvorak \_ Concerto for Cello in b minor, Op.104
- 프로코피예프 \_ 로미오와 줄리엣 Op.64 (하이라이트)
- S. Prokofiev \_ Romeo and Juliet, Op.64 (Highlights)  
(Excerpts from Suite Nos. 1, 2 and 3)

첼로의 거장인 로스트로포비치의 최연소 제자로, 전세계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인 엘로우 레이블 데카 레코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첼리스트 다니엘 리는 풍부하고 탄탄한 테크닉으로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을 표현으로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다니엘 리는 1990년 노스웨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주최 영 아티스트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14세인 1994년 필라델피아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데뷔 독주회를 가졌다. 2001년 에이버리피셔 상을 수상했고, 커티스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전세계를 누비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초 뉴욕 머킨홀에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졸탄 코다이의 '첼로 솔로소나타' 연주를 선보였는데,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그의 연주는 모든 관객들을 일제히 흥분시켰고, 공연의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다. 다니엘의 연주를 관람하게 된다면 누구나 그가 연주하는 음악과 그의 악기에 혼연일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와 제임스 맥밀란의 '첼로와 스트링을 위한 나무의 키스'를 협연했고, 그후 로스앤젤레스 챔버 오케스트라 객원지휘자인 베르나르 라바디의 지휘 아래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했으며,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예술을 위한 폴리처 재단에서 주최하는 크세나키스의 노모스 알파 공연을 마쳤다.



첼로 다니엘 리 (이상화)





울산시립무용단  
Urb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한국의 리듬과  
몸짓의 향연!

# 타타타

■ 프로그램

- 여명
- 물드림 칠채 - 리듬모리 - 사물유희
- 동방의 빛 - 장구춤 - 자진마치 - 오고무
- 하늘마치
- 비상



예술감독 겸 안무사 김상익



음악감독 전인근

2013. 4. 4(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가격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회관회원 30% 단체 20%할인)  
공연문의 <http://www.ucac.or.kr>, 275-9623~8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출연 울산시립무용단, 뿌리패, 동해누리, 태화루, 내드름, 새암

한국 전통춤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에서는 4월4일 (목)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재미있는 무용공연 "타타타"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역동적인 우리 가락을 들려주고, 보여주며 관객들과 함께 재미있고 신명난 무대를 볼수있을 것이며 관객들과 함께 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 가 될 것이다.

• **여명**

태초의 맥박소리가 울린다. 돌을 두드리고 나무를 두드리고 언어와 몸짓을 대신해 주위 사물을 이용해 두드려서 서로 교신했던 원시적 언어의 리듬이 멀리 생명의 고동소리가 희미하게 숨을 트고 그 태초의 맥이 역사의 길을 연다.

북 소리가 거칠고 광활하게 포효하며 천지를 뒤흔들고 최초의 생명, 공포, 염원의 소리가 새벽녘의 정기를 깨우며 울려 퍼진다. 여명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연주곡으로 8박자의 기본리듬에 4박과2박자의 다양한 리듬변화를 주어 우리 가락의 힘과 웅장함을 보여주는 대고의 합주곡이다.

• **물드림 칠채**

〈리듬모리〉

리듬로리는 빠른 휘모리 가락을 변형시켜 강한 비트와 리듬을 교차, 역동적인 몸짓과 여러 가지 연주 타법 등을 절고를 통해 보여준다. 혼신의 힘으로 터져오는 북소리는 빠른 스피드와 파워로 모든 것들을 쾌하게 날려 버리고 공간을 점령한 절정의 북소리는 심장을 터트릴 듯 아찔하고, 힘과 절제와 질서의 조화는 아름다운 놀이가 된다



〈사물유희〉

사물악기를 이용하여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유하게 마치 수 천 마리의 말들이 넓은 광야를 달릴 때처럼 쇠는 언 땅을 풀고, 징은 터를 닦고, 장구는 소리를 내며 달리고, 북은 하늘을 깨운다. 전통 가락과 현대 리듬이 혼합되어 연주자의 즉흥연주와 기교, 우리 가락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빠르고 강한 연주곡으로 매듭을



풀 듯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연주 형태로 변형되어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구성이 네 가지 타악기의 조화 속에서 최고의 연주를 보여 준다.

• **동방의 빛**

장구, 모듬북, 물드림,그라인더의 거친 마찰음과 불빛, 역동적인 산업수도 울산의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써 찬란한 빛을 발산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울산의 희망 찬 미래를 제시하는 공연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구성된 작품이다.

장구춤, 자진마치, 오고무

• **하늘마치**

우리나라 무용 중 부채춤을 응용하여 구성한 작품으로 산과 꽃 파도, 나비 등 지구상의 자연을 그려낸 작품이다. 모듬북, 중북, 창작무용이 어우러져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가 있는 현대적이며 세련된 무대 미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 주는 작품으로, 음의 강약과 음양,한배 등의 조화, 각 악기간의 주고 받음과 서로 엇물려 가면서 여주되어 한국의 정서와 한국 문화의 예술성을 다채롭게 풀어내며 세련되고 현대화된 예술로 교감 할수 있는 작품이다.





##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음악회

# “페르귤트 이야기”

2013. 4. 19(목) 11: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 김종규(부지휘자)  
해설 : 구경영(구연동화)

### ■ 프로그램

- 시벨리우스 / 교향시 ‘핀란드야’
- 그리그 / 페르귤트 모음곡 제1, 2번
  - 신부의 약탈, 잉그리드의 탄식
  - 산속 마왕의 궁전에서
  - 오제의 죽음
  - 아침의 경치
  - 아라비아의 춤
  - 아니트라와 춤
  - 페르귤트의 귀향
  - 솔베이그의 노래



##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준비한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페르귤트 이야기’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이번 공연은 울산지역 소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초청음악회이다.

이번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음악회는 앞으로 울산의 중심이 될 어린 꿈나무들을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초청하여 클래식 전용 공연장에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최고의 연주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공연장 방문을 통해 공연장에서의 예절과 감상방법, 공연장 주변 전시장과 공원 등 시설체험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구연동화로 듣는 그리그의 극음악 '페르퀀트'

이번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김종규 부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과 여러가진 악기 이야기 해설로 시작하며, 울산시향 단원들이 들려주는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로 연주회를 시작한다. 이어, 그리그의 극음악 <페르퀀트>를 구연동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그리그의 최고 명곡일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걸작 <페르퀀트>는 그리그가 31세 때 이 곡을 쓰기 시작했고, 다음 해 여름에 완성했다. 처음에는 피아노 2중주 형식으로 출판했다가 뒤에 오케스트라로 편곡했다. 이 극음악은 5곡의 전주곡을 비롯하여 행진곡, 춤곡, 독창곡, 합창곡 등 모두 23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헨리크 입센이 노르웨이 민속설화를 소재로 해서 쓴 <페르퀀트>의 환상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페르퀀트는 부농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산을 낭비하고 몰락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과부가 된 어머니 오제와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페르퀀트는 대단히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는 자신이 잘 될 것이라 큰소리치며 꿈을 꾸는 몽상가이자 방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돈과 모험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면서 기적적인 모험을 겪는 페르퀀트는 남의 부인을 빼앗기도 하고, 험준한 산에서 마왕의 딸과 같이 지내기도 한다. 농부의 딸인 솔베이그가 나타나 서로 사랑을 맹세하지만, 페르퀀트는 애인인 솔베이그를 두고 늙은 어머니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겪는다. 페르퀀트는 다시 먼 바다로 떠난다.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의 딸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등

부와 모험을 좇아 고뇌와 유랑의 모험을 하던 페르퀀트는 끝내 몰락한다. 그는 노쇠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다.

고향 산중의 오막살이에는 솔베이그가 페르퀀트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이 된 채, 그리하여 페르퀀트는 그를 사랑하던 여인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한다는 줄거리다. 그리그는 후에 이 극음악 가운데 가장 뛰어난 4개의 작품을 뽑아 '제1모음곡'으로 하고 그 후에 다시 4곡을 선정하여 '제2모음곡'으로 삼았다.

이 연주회를 통해 미래의 울산을 짚어지고 갈 꿈나무들에게 좋은 음악과 문화적 소양을 심어주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며, 울산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 중인 가족음악회와 하반기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음악회 등 울산의 문화, 예술발전과 클래식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구하고 있다.

## ■ 전석 초대

(울산지역 초등학교 4~6학년)

※ 본 공연은 울산지역 초등학교별 단체신청으로 관람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한 공연입니다.



#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4. 19~5. 19, 31일간  
제1전시장



▲윤중식

오는 4월 19일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들의 명작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5월 19일까지 한달간 제1전시장에서 마련되는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은 〈한국의 모던아트 1910~1980〉이라는 부제로 1910년대 서양미술이 한국에 유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초석을 닦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산증인 28인의 작품 50점을 전시한다.

지난 2010년부터 1년에 한번 울산 시민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접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장전의 일환으로 매년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전시로 올해에는 시민들이 늘 다시보고 싶은 작가로 꼽는 김창열, 김환기, 이대원, 이우환, 장욱진, 천경자 등과 함께 그동안 미처 소개하지 못한 김구림, 변시지, 임직순, 전혁림, 황염수 등의 작품을 섭외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였다.

초대작가는 권옥연, 김구림, 김종학, 김창열, 김환기, 김홍수, 문학진, 박고석, 박생광, 박서보, 박영선, 변시지, 변중하, 성재휴, 양달석, 윤중식, 이대원, 이림, 이만익, 이성자, 이우환, 임직순, 장욱진, 전혁림, 천경자, 최옥경, 하인두, 황염수 등으로 김구림, 김종학, 김창열, 김홍수, 문학진, 박서보, 이우환 천경자 화백을 제외하고는 현재 유명을 달리하였다.

서양미술이 유입된 1910년대부터 이를 받아들여 각자의 조형방식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이 작가들은 여전히 후학들에게 도전의식과



# 한국의 모던아트 1910-1980

## 김환기, 이우환, 장욱진, 천경자 등 거장 28인의 작품전시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의 발전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

예술에의 열정을 불려 일으키고, 미술애호가들에게는 칭송을 받으며 한국미술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영국 데이트모던의 초청을 받아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개념미술의 대부 김구림, 대표되는 한국 추상화의 대부 김환기, 설악산의 화가로 불리는 김종학,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김홍수 화백, 산의 화가라 불리는 박고석, 전통색과 서양화의 접합으로 독특한 화풍을 구현한 박생광, 한국 모노크롬의 대가 박서보, 제주의 화가 변시지, 화려한 점묘법으로 풍경을 그린 이대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현대 세계미술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이우환,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순진무구한 미술을 추구한 장욱진, 남성 중심의 화단에 채색화와 상징주의를 기반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여성화가 천경자, 장미의 화가 황염수 등 거장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쉽지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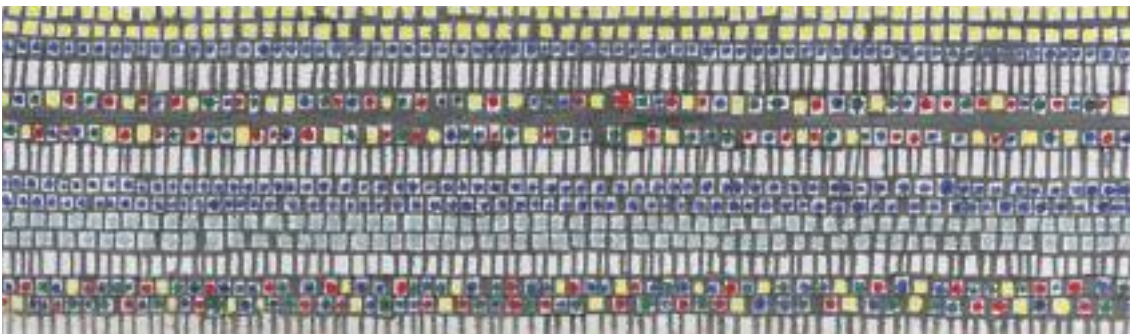
그동안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좋은 작품을 접하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으로 전시 관람을 떠나야 했던 시민들의 갈급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미술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미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이번 전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기대한다.



▲ 임직순



▲ 변시지



◀ 김환기





▲하인두



▲김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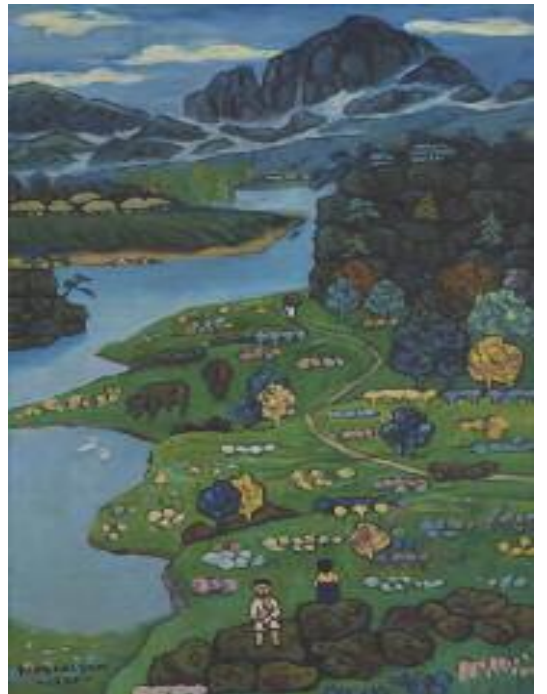
▲변종하



▲이우환



▲김창열



▲양달석



▲박생광



▲장욱진

■ 입장료 : 성인 5천원  
학생 3천원





#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세계의 문화도시  
보헤미아의 둠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이탈리아 오페라  
예술축제를 찾아서

**Part.2** 문화의 향이 있는 삶  
미래울산

**Part.3** 4월의 공연·전시  
4월의 공연·전시 일정

## 샬퍼드 로리 센터 & 보훔 백주년 홀



가동을 중단한 공장 건물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예는 얼마든지 많다. 런던 템즈 강변의 화력발전소 건물을 개조해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으로 개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테이트 모던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 지하에 발전소를 새로 짓고 지상에는 문화창작발전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현대식 건축물을 짓기보다는 건물의 뼈대는 남겨서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쇠락한 공업 지역이나 공장 건물을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바꾼 예는 영국 맨체스터 샬퍼드와 독일 보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런던 퀸즈 파크레이저스(QPR) 팀으로 이적했지만 한국의 축구 영웅 박지성이 그라운드를 누비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홈그라운드인 올드 트래퍼드다. 이곳에서 운하를 건너편에는 보이는 은빛 찬란한 현대식 건물이 있다. 바로 샬퍼드 부두 재생 프로젝트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로리 센터다. 1905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2세와 알렉산드라 왕비가 제9호 도크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던 바로 그 자리다. 사방이 탁 트인 수변이어서 주변 어느 곳에서나 눈에 잘 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서쪽에 위치한 샬퍼드는

맨체스터 도심에서 전차로 15분이면 도착하는 수변 지역이다. 영국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맨체스터와 운하로 연결되는 물류거점이었다. 공업 지대인 맨체스터에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1899년 운하를 개통했다. 샬퍼드는 1만 2500톤급 화물선까지 수용하던 내륙 항구였다. 1906년 인근 트래퍼드 파크에 자동차·섬유·기계 공업단지가 들어섰고 얼마 후 대형 도크까지 건설돼 한때는 22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던 영국 공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물류 방식이 바뀌면서 부두의 항만 시설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1970년대부터 화물의 컨테이너화로 선박은 점점 커졌고 샬퍼드 부두는 대형 선박을 대기엔 역부족이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낡은 창고와 폐허로 변한 부두가 보는 이의 이마를 지푸리게 만들었다. 오물과 공해가 넘쳐나는 우범 지대로 탈바꿈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항만 진입도로와 철도로 도심과 분리돼 어둡고 침침했고 모두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1982년에는 아예 도크를 폐쇄했다. 1985년 이 지역의 실업률은 30%에 달했다. 이듬해 샬퍼드 시의회는 이곳 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해 레저, 문화, 관광 특구 설립을 목표로 재개발 계획에 착수했다. 1980년대 말에는 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1981년부터 10년간은 이 지역에 투자하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 세금을 면제했고 자본 공제를 100% 허용했다. 우선 수질 개선, 운하 건설, 인도교, 도로 확충, 조경 등 인프라부터 확충했다. 보수당 내각은 시장 경제와 민간 투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노동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지방 의회





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적잖은 반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쇠락해가는 도크와 잇따른 공장의 폐쇄라는 현실 앞에서는 '적과의 동침'도 감수해야 했다. 로리 센터 건립을 위해 복권 기금에서 2100만 파운드를 내놓았다. 총건축비는 1억 600만 파운드가 들었다. 2000년 4월 개관한 로리 센터는 1730석 규모의 오페라·콘서트 겸용극장과 현대미술관, 레스토랑, 쇼핑센터, 예술교육센터, 아울렛 매장,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영장, 주차장 등이 들선 복합문화공간이다.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인도교로 연결되는 디지털 월드 센터와 대영 전쟁 박물관을 보태 거대한 문화·레저 타운으로 자리 잡았다. 스테인리스와 유리로 마감한 외관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떠올리게 한다. 센터 앞 광장은 마라톤 코스의 종점으로 유명하다. 로리 센터의 공식 명칭은 '더 로리'(The Lowry)다. 맨체스터 출신의 화가 L S 로리(1887~1976)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영국 북서부의 공장 지대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다. 로리 센터 내 갤러리에는 로리의 작품 350여점이 상설 전시 중이다. 1930년대부터

샐퍼드 미술관이 수집해온 작품들이다. 로리가 남긴 도록, 사진, 책 등 각종 자료를 모아 놓은 아카이브 룸도 있다.

1997년 6월 17일 착공식 때 샐퍼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타임 캡슐을 지하에 묻는 행사도 열렸다. 로리 센터의 개관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이 산뜻한 문화, 주거, 스포츠, 예술, 역사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우뚝 들어선 랜드마크 빌딩들이 세계적 수준의 건축미를 자랑한다.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쾌적한 주거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맨체

스터 운하 주변을 찾는 관광객 수도 연간 100만 명이 넘었다. 1987년 255명에 불과했던 취업 인구가 1990년에는 1030명, 2006년에는 1만 3033명으로 10배 가량 늘어났다. 2030년에는 2만 8500명으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리 센터는 맨체스터 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 맨체스터 공항에서 20분 걸린다. 맨체스터 피카딜리, 빅토리아 역에서 메트로링크 전차를 타고 하버 시티에 내려 10분 정도면 도착한다. 옥스포드

로드 역에서 내려 세인트 피터스 스퀘어에서 전차를 타고 하버 시티에 내려 도보로 10분 거리다. 버스는 69번이 로리 센터까지 온다. 보훔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인구 37만명 규모의 도시다. 라인강 동쪽으로 루르 공업지대에 있으며 주변에는 에센, 도르트문트가 있다.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제철소가 있던 곳이다. 요즘엔 탄광이 문을 닫는 대신 오펔 같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다. 1902년 뒤셀도르프에서 '미니 엑스포'라고 불렀던 세계산업박람회가 열렸을 때 보훔의 철강회사가 대형 홍보전시관을 마련했다. 나중에 공장 부지에 옮겨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철제 구조로 제대로 지었다. 건물은 네오 고딕 양식의 교회당처럼 설계했고 이 회사가 자랑스럽게 만든 교회종을 종탑에 매달았다. 박람회가 끝난 뒤 전시관을 옮겨 보훔 철강소의 화력 발전소 건물로 꾸몄다. 종탑이 있던 곳에 연료 탱크를 올렸다. 나중에 길이 158m, 너비 34m, 높이 21m의 축구 경기장 만한 넓이의 건물로 증축했다.

1960년대 말 제철소가 조업을 중단하자 크롭 사가 이곳을 매입해 창고로 사용했다. 루르 지역에 산재해있던 철강 회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다. 크롭 사도 1997년 합병 이후 흩어져 있던 제철소를 물류 최적지인 뒤스부르크에 모았다. 1988년 국영 개발업체인 북라인웨스트팔렌(LEG)이 건물을 매입했고 1991년엔 문화재로 등록됐다. 리모델링을 거쳐 2003년 4월 30일 음악극 전문 축제인 '루르 트리엔날레'(Ruhrtriennale) 개막 공연과 함께 문을 열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지낸 게라르 모르티에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음악제다. 화력발전소 건물로 문을 연 지 꼭 100주년 되는 날이었다. 이곳에서 첫 음악회가 열린 것은 1991년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의 합동 공연이었다. 2002년 2월 뒤셀도르프 출신의 건축가 페친카 핑크의 설계에 따라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했다. 공장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물 내부의 독특한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었다. 특수 커튼 시스템으로 1만 평방 미터에 가까운 실내 공간을 각기 다른 크기의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 무대이기도 하다. 홀의 남단에는 2층 규모의 로비, 6층 규모의 출연자 대기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각각 1500명,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형 무대도 있다.

**클.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월간 객석)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 보헤미아의 영혼 '둠키'

바람결에 흩날리는 벚꽃의 모습이 아름다운 4월이 되면 떠오르는 곡이 있다. 사실 실내악은 학구적인 느낌이 있어 다소 지루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던 때였는데 푸른 하늘아래 연분홍 빛깔의 벚꽃이 바람결에 날리는 풍경이 그림 같던 날, 꺾가로 흐르던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둠키(Dumky)' 1악장 선율이 유난히 기분 좋게 다가왔다.

인상적인 서주가 흐르고 지극히 감상적이고 그리움 가득한 선율이 느린 템포로 흐르다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고 활기찬 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청량감 있게 느껴졌고 하나의 테마 선율이 강약을 조율하며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기쁘게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드보르작의 표현력에 홀딱 반해버렸다. 마치 사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싱송송한 봄처녀의 마음 같았다고나 할까. 잔잔하고도 가슴시린 비가(Elegy)의 느낌에 한껏 가슴 시리다가도 또 금세 밝고 경쾌한 선율에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당시 감성 충만했던 20대 초반 여대생 딱 나의 모습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클래식 입문자였던 터라 즐겨들던 드보르작의 작품이 교향곡 7,8,9번, 첼로 협주곡, 유모레스크, 슬라브무곡 정도였으니 그리고보면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둠키>는 드보르작의 실내악에 입문하게 한 계기가 된 작품이다. 사실 드보르작하면 교향곡이나 협주곡 정도를 떠올리는 사람들 많을 거다.



하지만 실내악 분야에서의 드보르작의 진가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못지않다. 드보르작의 작품번호 1번이 현악 4중주라는 점만 보더라도 드보르작이 얼마나 실내악을 사랑한 작곡가였는지 짐작할 수 있고 그가 남긴 다수의 실내악 작품, 14개의 현악 4중주를 비롯한 피아노 5중주, 피아노 4중주, 현악 5중주, 피아노 트리오 등의 다수의 실내악 작품을 듣다보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많지 않을거다.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뚝키'는 1891년 그의 나이 50세에 작곡됐다. 프라하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는 등 그의 명성이 빛을 발하던 아주 행복한 시기에 나온 작품이라 드보르작의 장기인 슬라브 특유 정서가 작품 속에 한껏 담겨져 있는데 헝가리의 차르다슈(Czardas)와도 비슷한 느낌이다. 원래 '뚝키'는 우크라이나에서 민속 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애가(哀歌) 풍의 민요인 '뚝카(Dumka)'의 복수형으로 느리고 슬픈 부분과 빠르고 활기찬 부분이 대비를 이루는 음악을 말한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드보르작은 이 작품에 민요형식의 뚝카를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 '관조하다', '명상하다'란 뜻의 체코어 '두마티(Dumati)'란 말이 뚝카와 유사해 관심을 갖게 됐고 뚝카에 이런 명상적인 요소를 넣어 작곡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면 감성적인 단조의 애가가 명상적으로 이어지다 어느 순간 밝고 경쾌하게 연주되는 부분에선 춤을 추는 듯이 변모하는 느낌이 반복되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다. 이런 감성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즉흥적인 느낌이 좋아서였을까. 드보르작의 작품에는 이 작품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뚝키' 말고도 슬라브 무곡과 피아노 5중주 등의 여러 작품에 심심치 않게 뚝키, 혹은 뚝카 형식이 쓰였다. 전체 작품은 아니지만 피아노 5중주 A장조 Op.81, 현악 6중주 10번 Op.51, 현악 6중주 Op.48번의 2악장에 각각 '뚝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드보르작의 '뚝카'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악장이 '뚝카'로 되어 있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뚝키'는 그 자체로 독특하다. 그것도 전통적인 4악장 형식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이 아니라 6악장으로 모음곡과 같은 구성을 취한 것도 눈길을 끌고 1,2,3악장을 씩없이 연주해 6악장이 마치 4악장인 듯 느껴지게 작곡한 것도 감탄스럽다. 어떤 형식이나 주제가 아닌 듣는 사람을 위한 심리적인 배려가 느껴지는 곡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의 씩씩이가 예쁘게 느껴지는 곡이라 마음이 더 간다.

봄바람과 함께 귤가에 들려오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뚝키' 1악장은 푹푹했던 대학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수크 트리오와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도 이 곡을 많이 들었지만 그 당시엔 무엇보다 클래식 X세대라 불렸던 유쾌 발랄한 안트리오의 연주로 이 곡을 참 많이 들었던 거 같다. 정통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이 랩스키트에 탱크톱, 몸에 딱 달라붙는 가죽바지를 입고서 무대에 오르는 것이 신선한 것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실험정신, 그러니까 현대음악이건 팝이건 아직 생존해있는 음악인들의 작품을 클래식으로 들려주는 실험정신이 참 멋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들의 진지하면서도 진취적인 음악정신이 빛어낸 드보르작의 선율도 마음에 들었다. 슬라브 민족 특유의 애가가 밝은 선율로 이어질 때면 드보르작이 자신의 특기인 민족적 애수를 고수하면서도 작곡 당시의 개인적인 행복한 감흥을 작품 속에 담고 있던 생각이 들었고 슬픔 속에 반복되는 즐거운 분위기는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 같아 흐뭇했다. 다시금 돌아온 벚꽃 흩날리는 이 계절, 추억 삼아 안 트리오 연주의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Op.90 '뚝키'를 볼륨 높여 들어본다. 선율 속 전해지는 슬픔과 사색에 마음을 놓아보고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이 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온기가 따스하리라.

---

클\_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



# 클로드 로랭의 <크리세이스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율리시즈>



클로드 로랭, <크리세이스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율리시즈(Ulysse remet Chryseis a son pere)>, 17세기, 캔버스에 유채, 119 x 150cm, 루브르 박물관.

일식 같은 특별한 천체 현상이 없는 한 우리가 매일 뜨고 지는 해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일은 거의 없다. 오늘날 해는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항성일뿐이지만, 옛 사람들은 이를 초월적 존재로 숭배했다. 기독교 문화에서 태양은 신의 은총과 사랑을 상징했고, 세속에서는 통치자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 이후 자연과학은 급속도로 발달했고, 태양은 무한한 신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우연의 일치로 르네상스 이후 회화에서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진 점은 흥미롭다. 이제 자연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흥미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곳이 된 까닭이다. 19세기말 인상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수많은 화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고, 이 중 17세기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프랑스 동북부 로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로마로 가서 그림공부를 했고, 생애의 대부분을 로마에서 보냈다는 것 외에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당시 로마는 서양미술의 중심지였고, 유럽 각지에서 온 화가들은 이탈리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대 유적과 온화한 자연을 화폭에 담았다. 이때에는 반종교 개혁 이후 강력해진 교회가 주도하는 웅장한 바로크 미술이 지배적이었지만, 클로드 로랭의 작업은 당시 로마의 이런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터너, <국회의사당의 화재, 1834년 10월 16일 (The Burning of the Houses of Parliament, 16 October 1834)>, 1835, 캔버스에 유채, 123 x 92.7 cm, 클리블랜드 미술관.



모네, <인상, 해돋이(Impression, soleil levant)>, 1872, 캔버스에 유채, 48 x 63 cm, 마르모탕 미술관.

그의 대표작들은 주로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상적인 고대를 배경으로 그린 풍경화이다. 그의 풍경화가 당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모사품까지 등장했고, 화가 난 그는 일종의 작업일지인 <리베르 베리타티스(Liber Veritatis, 진실의 책)>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그가 제작한 그림의 구성물과 주문자, 그림에 나타난 고대 건축물이 있는 장소, 간략한 메모와 그림이 잘 정리되어 있어 오늘날 클로드 로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흔히 풍경화라고 하면 야외에서 사생하는 것을 연상하지만, 그것은 19세기 인상주의 시대 이후에나 생겨난 작업 방식이다. 휴대하기 간편한 접이식 이젤과 튜브 물감이 없던 클로드 로랭의 시대에 이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었고, 화가들은 밖에서 그린 스케치들을 조합하여 실내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했다. 클로드 로랭도 많은 데생을 했지만, 그는 실제의 자연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이를 조합하여 이상적인 풍경을 만드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그가 확립시킨 이런 종류의 풍경화를 '이상적 고전주의 풍경화'라고 부른다. <크리세이스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는 올리스즈>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일화를 다루고 있다. 당시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 획득한 노획물을 나눠 갖는 게 관습이었고,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었다. 크리세이스는 아폴론 신을 모시는 사제 크리세의 딸이었는데 그리스의 명장인 아가멤논이 그녀를 차지했다. 딸을 돌려달라는 간청을 거부당하자 크리세는 아폴론 신에게 그리스 군을 혼내달라고 빌었고 곧 그리스 군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신탁을 통해 이 병의 원인을 알아낸 아킬레우스가 크리세이스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고 했는데, 아가멤논이 이를 거부하면서 둘 사이에서는 심한 언쟁이

벌어졌다. 크리세이스를 잃은데 화가 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의 노획물이었던 브리세이스를 데려간다. 이에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고, 최고의 전사가 빠진 그리스 군은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서와 달리 클로드의 작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찾아내기 어렵고,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클로드 로랭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다.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햇빛은 파사롭고, 정교하게 그려진 건물들은 고전적이다. 그가 완벽하게 구사하는 고대 건축물을 이용한 원근법은 그림의 중심이 되는 이제 지고 있는 수평선 바로 위에 놓인 해로 집약된다. 클로드 로랭은 빛의 다양한 면,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요소인 태양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는 태양을 그림의 주제로 삼은 최초의 화가였다. 당시 화가들이 무지개나 구름, 천둥번개 같은 클리셰를 사용한다에 비해 그는 보다 담백하게, 태양 빛 자체와 그 반사와 반영, 빛의 울림 같은 것을 다루었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빛의 변화를 연구한 화가로 흔히 모네를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클로드 로랭이 있었다. 전경에 펼쳐지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림의 제목이 되긴 하지만, 클로드 로랭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은 빛과 대기의 효과를 연구하고, 이를 로마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대 유적과 조합하여 이상적인 고전적 풍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클로드 로랭을 통해 이전까지는 역사화나 신화, 종교적 주제를 다룬 그림의 배경에 불과하던 풍경화가 독립된 장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클로드 로랭이 직접 키운 제자는 두 명에 불과하고, 오늘날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클로드의 작품을 터너(J. M. W. Turner)의 <국회의사당의 화재>와 모네(Claude Monet)의 유명한 <인상, 해돋이>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이후의 미술에 미친 그의 영향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영국의 국민화가 터너는 국가에 작품을 유증하면서 조건으로 자신의 작품과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나란히 걸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를 숭배했다고 한다. 터너의 바람은 이루어져서 오늘날 런던 내셔널갤러리에는 그의 <안개 속의 해돋이>와 <카르타고를 떠나는 디도>가 클로드 로랭의 <시바 여왕의 승선이 있는 항구>와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이 있는 풍경> 사이에 걸려 있다.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Verdi

## 이탈리아 오페라 4- 베르디 (III)



〈1886년 베르디 모습- G. 볼디니 그림〉

이탈리아는 1861년 3월 통일이 된다. 통일왕국의 수상 카불은 자신의 음악으로 조국의 통일에 크나큰 기여를 한 베르디에게 국회의원이 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베르디는 이를 받아 들여 1865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 1874년 통일 이탈리아의 국왕 빅토르 엠마누엘 2세는 베르디에게 상원의원 (Senator of the Kingdom) 이라는 칭호를 하사한다. 이제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통일을 이루자 베르디는 산타 아가타 농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진다. 외국에서는 계속 베르디에게 작품을 청탁하게 되고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1862년 1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극장에서 초연한 ‘운명의 힘’, 1867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한 ‘돈 카를로’, 1871년 카이로 오페라극장에서 초연한 ‘아이다’ 이다. 이들 작품은 대규모 그랜드 오페라 풍으로 통일 조국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웅장한 작품들이다. 특히 ‘아이다’의 경

우는 베르디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아이다’는 58세의 원숙기에 접어든 베르디의 작품으로 그의 이전 오페라 23개 작품의 총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노래와 멜로디 중심의 이탈리아 오페라의 특징을 살리면서 드라마와 음악이 합일을 이루어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감정표출에 중점을 두었다. 베르디는 ‘아이다’에서 과거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완성하면서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작곡하는 오페라 ‘오텔로’와 ‘팔스타프’는 완전히 진보된 오페라의 기법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다’는 베르디가 주문에 의해 작곡한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1869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 완공 기념으로 베르디에게 의뢰한 오페라 ‘아이다’는 1871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카이로 오페라극장에서 쇼반니 보테시니의 지휘로 역사적인 초연이 이루어졌다. 초연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연이어 밀라노, 뉴욕에서도 초연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베르디 개인적으로는 ‘아이다’ 공연을 통해 보헤미아 출신 소프라노 테레사 슈톨츠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1834년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슈톨츠는 프라하 콘서바토리에서 공부하였으며, 1865년부터 스칼라극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 ‘아이다’의 이탈리아 초연 때 주역을 맡았고 이즈음에서 베르디와 염문으로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1874년 베르디의 ‘레퀴엠’ 초연에서 주역 소프라노를 맡았다. 1894년 베르디의 부인 스트레포니가 죽자 베르디는 테레사 슈톨츠와 여생을 함께 하게 된다. 1874년 베르디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이탈리아의 대문호 알렉산드로 만쾨니 서거 1주년에 맞추

어 ‘레퀴엠’을 발표한다. 밀라노의 성마르코 성당에서 베르디가 직접 지휘하여 ‘레퀴엠’을 성공적으로 초연하면서 고인에 대한 베르디의 마음을 전했다. 초연 이후 밀라노 스칼라극장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베르디의 여타 오페라 못지않게 금새 갈채를 받게 된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세계 오페라계의 지존으로 군림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베르디는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거나 재공연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창작 활동이 뜸하게 된다. 그의 이러한 침거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리하르트 바그너 때문이었다. 그 당시 전 유럽에서 베르디와 동갑내기인 바그너의 음악극 열풍이 휘몰아친다. 이탈리아 오페라계에서도 은근히 자국의 오페라와 베르디를 폄하하면서 바그너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바탕으로 오페라 발전에 평생을 헌신해 온 베르디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닌 것이다. 1880년 오페라 ‘메피스토펠레’의 작곡가이자 유명한 대본가인 아리고 보이토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오페라로 만들고 싶어 자신이 대본을 완성했다. 하지만 자신으로서서는 이를 오페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베르디에게 이 대본을 가져가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베르디가 평생을 두고 탐독해 온 존경하는 작가였다. 33세 때 ‘맥베드’를 쓴 이후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들을 오페라로 만들려고 계획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리어왕’ 같은 경우는 대본가 솜자가 대본을 모두 완성해 놓은 상태였지만 작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페라 ‘오텔로’는 베르디의 작품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긴 6년이나 소요된 작품이었다.





〈 '아이디'의 카이로극장 초연당시 남자 주인공 라다메스 의상 스케치 〉



〈 고향 부세토에 세워진 베르디동상 〉  
photo by Luigi Secchi

작곡기간 사이에는 '시몬 보카네그라'와 '돈 카를로' 수정 작업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가 이 오페라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1886년 가을 작곡을 완성하여 어느 작품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베르디는 연주가들에게 작품을 연습시켰다. 이듬해 1887년 2월 스칼라극장 무대에서 초연이 이루어진다. 이 작품은 기존의 이탈리아 오페라와는 달리 새로운 바그너적인 구성이지만 그 기저에는 이탈리아의 전통이 깊이 숨쉬고 있는 작품으로 청중들의 감동은 배가 된다. 초연 날 밤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베르디의 숙소에까지 몰려가 베르디를 연호하였다. 그 화려한 성공은 대단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에 기초하면서 극과 음악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바그너의 악극에 뒤지지 않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예술성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음악가로서 세상에서 모든 업적을 이루고, 속세를 초월하여 산타 아가타 농원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던 노인 베르디는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쾌한 희극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베르디의 두 번째 작품이며 그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작곡한 '하룻밤의 임금님'이 베르디의 유일한 희극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인기작들은 모두 비극이었던 것이다.

보이토는 셰익스피어의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과 '헨리 4세'를 소재로 '팔스타프'의 대본을 완성했다. 베르디는 보이토가 집필한 이 대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면서 '이 오페라는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공언을 하였다. 1893년 스칼라극장에서 초연 하였을 때 청중들은 베르디에게 30번이 넘는 커튼콜을 안겨주면서 노대가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1897년 일생의 반려자였던 스트레포니를 잃고 베르디는 종교음악에 심취 성가 4편을 완성하게 된다. 1901년 1월 21일 밀라노 그랜드호텔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베르디는 1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밀라노에 있는 기념묘지(Cimitero Monumentale)에 임시로 매장되었다가 카사 베르디(베르디가 설립한 음악인을 위한 안식의 집)의 교회 지하에 영묘를 만들어 그의 유언대로 스트레포니와 함께 안장되었다. 밀라노의 기념묘지로부터 카사 베르디로 유해가 운구 될 때에는 밀라노 시민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운집하여 거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며 지켜보았고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베르디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탈리아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오페라 '나부꼬' 중 '가라 금빛 날개를 타고..'를 연주하였다.



〈 1880년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아이디' 초연 때 베르디가 지휘하는 모습 〉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 봄을 여는 중유럽의 화려한 음악 축제



회사의 든든한 울타리 아래 있던 시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 서류 상에 표시된 두 자릿수의 연가 일수와 달리 제가 쓸 수 있는 휴가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것도 7~8월에 사용할 것이 권장되었죠. 어딘가로 훌쩍 떠나기에는 비행기 티켓이며 숙박비가 일 년 중 가장 비쌀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봄철에 있는 유럽 음악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축제는 중유럽에 자리 잡은 세 나라, 바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의 ‘스프링 뮤직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데다 과거 사실상 같은 나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엔나에서 활약했던 예술가 가운데는 체코나 헝가리 출신이 많습니다. 이렇듯 세 나라는 국경을 넘어 공통된 문화를 지니고 있는 반면, 너무나 특색 있는 독자적인 문화도 간직하고 있기에, 언젠가 3개국을 돌며 멋과 맛을 만끽하는 호사를 누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

데요. 여러분도 살짝 들여다보시겠어요?



## •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체코를 연결하는 합스부르크

유럽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입니다. 1273년 루돌프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이후 650년에 걸쳐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합스부르크가의 화려한 유적이나 유산을 찾아볼 수 있죠. 합스부르크의 역사를 가장 잘 전해주는 곳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수도 비엔나에 있는 선부른 궁전은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부터 합스부르크 역사를 아는 데 중요한 곳이죠. 헝가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 오스트리아와 이중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합스부르크와 관계가 깊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초연된 뮤지컬 <엘리자베스>는 오스트리아 황비인데요. 헝가리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황비로, 그녀와 관계있는 많은 것들이 수도 부다페스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프라하 역시 합스부르크가와 관계가 깊습니다. 15세기 중반 보헤미아의 지배자인 룩셈부르크가는 후계자가 끊겼는데요. 그때 룩셈부르크가와 혼인 관계에 있던 합스부르크가의 알브레히트 5세가 보헤미아 왕이 됩니다. 보헤미아는 실질적으로 합스부르크가의 영토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대공으로 보헤미아와 헝가리 왕이었던 루돌프 2세는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살았습니다.



## • 부다페스트 봄 축제(Budapest Spring Festival)

중유럽의 작은 나라 헝가리. 하지만 그 역사와 도시 전경,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예술적 깊이와 다양함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죠. 프란츠 리스트의 나라이며, 영화 <글루미 선데이>와 동명의 타이틀 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묵직하게 끌어당기는 나라입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 강을 사이로 부다와 페스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역사적인 관광지는 강의 우안, 부다 쪽에 몰려 있



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체니 다리와 왕궁의 언덕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이 가장 부다페스트다운 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음악 축제 가운데 봄을 여는 화려한 시작도 이곳 부다페스트가 도맡고 있는데요. 바로 ‘부다페스트 봄 축제(Budapest Spring Festival)’입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부다페스트 봄 축제’는 3월 22일 시작해 4월 7일까지 17일 동안 클래식 콘서트와 오페라,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도시 전역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연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데다 거리의 무료 공연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헝가리를 비롯한 세계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비엔나 봄 축제(Vienna Spring Festival)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답게 연중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잘츠부르크, 브레겐츠와 함께 여름 오페라 축제가 가장 유명하지만, 해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봄 축제도 열립니다. 지난 1992년에 시작돼 올해로 22돌을 맞는 ‘비엔나 봄 축제(Vienna Spring Festival)’는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57개의 콘서트로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클래식의 도시 비엔나에서 만나는 블루스 선율은 어떨까요? 앞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비엔나 블루스 스프링(Vienna Blues Spring)’이 개최되는데요. 세계 4백여 명의 뮤지션들이 40여 개의 무대를 통해 정통 델타 블루스에서 록, 솔, R&B 그리고 부기까지 블루TM의 진한 감동을 흠뻑릴 예정입니다.

• 프라하 봄 국제 축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Festival)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도 봄마다 화려한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특히하게도 ‘프라하 봄 축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Festival)’는 여느 축제와 달리 날짜가 고정돼 있는데요. 5월 12일 시작해 6월 2일 마칩니다. 5월 12일이 체코가 자랑하는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스메타나는 드보르작,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에 언급된 야나체크와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의 억압 아래 있던 체코인들의 민족운동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의 봄 축제는 그의 기일인 5월 12일,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으로 문을 엽니다. 다른 중유럽의 봄 축제와 달리 프라하 봄 축제는 역사와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된 조국의 해방을 알리는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끝으로 폐막합니다. 상징적인 개막식과 폐막식 티켓은 자리가 오픈되자마자 일찌감치 매진되곤 하는데요. 프라하에 갈 계획이라면 이 근사한 페스티벌에 꼭 참여해야겠죠?

글 윤하정

KBS 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공연매거진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 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유학중이며 유럽 공연여행을 준비 중이다.





#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울산문화예술회관 & 늘 울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미래울산 업무협약 체결

■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울산문화예술회관(관장 이형조)과 건강하고 희망찬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시민 단체 미래울산(대표 이영미, 여인호)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오는 22일(금) 오후 2시 울산문화회관장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미래울산은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원인 Arts Friend 단체회원가입(150명)을 통해 공연 할인, 문화정보지 정기구독, 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무료관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 외에도 공연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앞서 회원인 Arts Friend를 오는 2015년도까지 울산광역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12만 명을 확보할 계획을 밝히면서 가입기간 확대편성 및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신설하고 학교,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Arts Friend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미래울산은 울산의 사회, 경제, 복지, 정치문화 성숙을 위하여 세미나, 초청 강연회, 포럼 개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교육, 복지, 여성, 청소년 문제 등 당면 과제들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로의 발돋움을 위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여론을 수렴, 결집, 관철시키고자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이형조 관장은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시작으로 학교, 기업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문화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향상된 문화수준은 또다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Arts Friend 모집에 범시민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Performances

## 창작오페라 “암각화”

일 시 | 4. 3(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0,000 · 학생 10,000  
주 최 | 울산오페라단

### ■ 공연개요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창작오페라를 제작하고 공연함으로써 울산오페라의 우수성과 음악적 수준 제고

### ■ 작품내용

반구대 암각화를 배경으로 고래그림의 생명성을 노래하며 대륙나라의 암각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암각화를 지켜낸다는 내용의 창작 오페라

## 제33회 아가페 합창단 정기연주회 “다문화 가족 돕기”

일 시 | 4. 4(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아가페합창단

### ■ 공연개요

울산아가페합창단의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제33회 정기 연주회로 합창, 중창, 독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진행

### ■ 프로그램

- Blessing 외 3곡
- 주기도 / 마룻테 외 1곡
- 가고파 / 박지훈 외 2곡
- 비발디 곡 중
- EASTER CANTATA

## 제11회 울산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4. 6(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 ■ 공연개요

울산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 ■ 프로그램

- A Whole Lot of Symphony Themes
- LEROY ANDERSON FAVORITES
- THE CHILDREN OF SANCHEZ
- You're the One that I Want (musical Grease OST)
- HAIR SPRAY
- THE Best of Michael Jackson
- JAMES BOND MEDLEY
- THE STAR WARS EPIC-PART I
- THE STAR WARS EPIC-PART II
- KING KONG SOUNDTRACK HIGHLIGHTS

## 천곡 한울 학생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일 시 | 4. 12(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천곡 한울 학생오케스트라

### ■ 공연개요

천곡 한울 학생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로 예술 교 육을 통해 인성 및 문화 격차라를 해소하고자 함.

### ■ 프로그램

- 1부(악기소개, 앙상블)  
터키행진곡,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 2부(오케스트라 합주)  
아리랑,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캐리비안 해적 등

## 제11회 청소년 사랑대축제

일 시 | 4.13(토) 14:3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주)울산종합일보

### ■ 공연개요

울산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연

### ■ 프로그램

- 식전행사

### - 개회식

- 청소년 가요제

## 혼사랑 SILVER 합창단 창단 3주년 기념공연

일 시 | 4.13(토)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혼사랑SILVER 합창단

### ■ 공연개요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 과 혼사랑 silver합창단을 알리고 합창을 통하여 세대통합 및 노인 여가생활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함

### ■ 프로그램

- 내 마음의 강물 외 3곡
- 파란나라 외 1곡
- 에델바이스 외 2곡
- 금관 5중주와 합창

## 제23회 전국무용경연대회

일 시 | 4. 14(일) 1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무용협회

### ■ 공연개요

제23회 전국무용경연대회 개최로 무용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를 도모 및 질적 향상

### ■ 프로그램

- 한국 무용 전통
- 한국 무용
- 발레 창작
- 발레 클래식
- 현대 무용
- 사회 무용

## 2013 사랑의 효잔치

일 시 | 4.17(수) 14: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초대)  
주 최 | 울산문화방송(주)

■ 공연개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복합 공연

■ 프로그램

- 전통무용&민속공연
- 지역가수 및 초청 인기가수 공연

**제16회 울산연극제 “언덕을 넘어서 가자”**

일 시 | 4.17(수)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5,000 · 학생 10,000

주 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제31회 전국 연극제 예선전 (극단 울산씨어터예술단)

**제16회 울산연극제 “은미”**

일 시 | 4.19(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5,000 · 학생 10,000

주 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제31회 전국 연극제 예선전 (극단 푸른가시)

**제16회 울산연극제 “화석이 된 시간”**

일 시 | 4.21(일)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5,000 · 학생 10,000

주 최 |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제31회 전국 연극제 예선전 (극단 무)

**2013 울산 YMCA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20(토)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20,000 · S/10,000

주 최 | 울산 YMCA합창단

■ 공연개요

틀에 짜여진 기존의 고전적 합창연주에서 벗어나 시대와 격조에 맞는 편곡들로 수준 높은 합창과 다양한 악기들과의 어울림을 선사하는 공연

■ 프로그램

- 1St : Amor de mi alma 등
- 2St : 꽃타령 등
- 3St : 사랑이라는 이유로 등
- 4St :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등 다수

**제15회 김외섭 창작무용단 정기공연**

일 시 | 4.25(목)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김외섭창작무용단

■ 공연개요

- 김외섭 창작무용단의 제15회 정기공연  
부제 : “전화영무”
- 신라말기의 명기 전화영의 예술적 자취를 재 해석하여 울산의 무용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고 울산무용 예술의 정신을 고취

■ 프로그램

- 제1막  
(1장 비보, 2장 비애, 3장 회상)
- 제2막  
(1장 님, 2장 바람이 되어)

**2013 서덕출 창작동요제**

일 시 | 4.28(일) 16: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문화방송(주)

■ 공연개요

- 울산 출신 동요작가 서덕출 선생을 기리기 위한 창작 동요제
- 서울과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15개 동요팀들이 펼치는 동요제

■ 프로그램

- 축하공연 : 본 행사 전 2개 팀 축하공연
- 동요제 : 15개 팀 참가
- 축하공연 : 시상식 전 2개 팀 축하공연
- 시상식

**남구 구립교향악단 5월 가족음악회**

일 시 | 4.30(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구립 교향악단

■ 공연내용

클래식 및 합창음악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연주
- 바리톤 협연
- 합창단 협연
- 소프라노 협연
- 오케스트라 연주





# Exhibition

## 제6회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전

기간 | 4. 4(목)~4. 9(화) 6일간  
장소 | 제1전시장  
주최 | 울산매일 사진동호회

### ■ 전시내용

울산매일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촬영한 울산의 풍경을 렌즈에 담아낸 사진작품 100점 전시

## 제5회 울산공예디자인협회전

기간 | 4. 4(목)~4. 9(화) 6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울산공예 디자인협회

### ■ 전시내용

울산지역 공예디자인 작가들의 작품을 일반인에게 전시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다양한 공예디자인작품 50점 전시

## 제1회 오지연 개인전

기간 | 4. 4(목)~4. 9(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오지연

### ■ 전시내용

다양한 한글 서체를 중심으로 한문 및 양각, 음각, 반각 등의 색다른 기법의 전각 작품, 병풍으로 완성한 문인화 작품 등 서예작품 30점 전시

## 제1회 차치만 조각전

기간 | 4. 4(목)~4. 9(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차치만

### ■ 전시내용

현대를 살아가면서 입게 되는 다양한 상처와 치유를 테마로 한 조각작품 20점 전시

## 제10회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기간 | 4. 11(목)~4. 16(화), 6일간  
장소 | 제1,2,3,4전시장  
주최 | 울산서화예술 진흥회

### ■ 전시내용

울산서화예술진흥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전국 서예 문인화를 공모, 분야별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한글, 한문, 문인화 부문의 대상, 최우수, 우수, 특선, 입선 등 부문별 입상작품 총 300점 전시

## 제1회 임영아 개인전

기간 | 4. 18(목)~4. 23(화), 6일간  
장소 | 제3전시장  
주최 | 임영아

### ■ 전시내용

작가생활 10여 년간의 작품세계를 울산시민과 함께 하고자 마련한 첫 번째 개인전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소재로 한 구상미술 작품 20점 전시

## 제3회 늘그릴 회원전

기간 | 4. 18(목)~4. 23(화), 6일간  
장소 | 제4전시장  
주최 | 늘그릴회

### ■ 전시내용

늘그릴회는 수채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아서 만든 미술동호회 모임으로, 풍경화, 정물화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수채화 기법으로 표현한 회원 7명의 미술작품 35점 전시

## 선시화사진전

기간 | 4. 19(금)~4. 26(금), 7일간  
장소 | 제2전시장  
주최 | 자비선사

### ■ 전시내용

일상을 통해 바라보는 사공간의 흐름과 삶의 형상들을 수묵화로 표현한 선(禪) 시화작품 및 카메라 파인더에 의해 형상화한 오묘한 색의 조화 등 치유와 성찰의 사진작품 총 40점 전시

## 제17회 울산미술대전 접수 · 심사

기간 | 4. 27(토)~4. 28(일), 2일간  
장소 | 제2,3,4전시장  
주최 | 울산미술협회

### ■ 전시내용

지역 신진작가 발굴 및 울산 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17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작품접수 및 심사 개최

#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 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여유  
가슴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 ☘️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일반회원 (만19세이상)	가족회원 (4인가족)	청소년회원 (만7세이상~ 만18세이하)	단체회원 (10인기준)	비고
1년	20,000	40,000	10,000	100,000	
3년	50,000	100,000	25,000	250,000	15%할인
5년	80,000	160,000	40,000	400,000	20%할인
10년	150,000	300,000	75,000	750,000	25%할인

※ 단체회원은 1인 추가시 10,000원

### 회원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 회원가입하실 때 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 회비납부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시 30%이내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이내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http://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3. 22**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